

# '2026 나주방문의해' 선포... 500만 관광도시 실현 눈앞으로

2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선포식... 전국 단위 관광 마케팅 본격화  
홍보대사 위촉, 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 체결... 관광 활성화 기동  
'나주 1박 2득' 인센티브 시행, 체류형과 소비형 관광 전환 가속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전국 단위 관광 마케팅과 체류형 관광정책을 본격 가동하며 500만 관광도시 실현을 향한 도약을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2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나주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고 방문의 해 추진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나주시 관광 비전과 전략을 전국에 알리는 공식 출범 행사로 중앙부처와 광역·관광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다지고 전국 단위 홍보 마케팅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행사에서는 방문의 해 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와 나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홍보, 관광 콘텐츠 확산, 관광 네트워크 연계 등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포식과 연계해 현장에서 나주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주제관'을 운영한다. 주제관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나주의 역사, 문화, 미식, 체험 콘텐츠를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해 '영산강의 중심, 나주'라는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선포식을 출발점으로 체류와 소비 중심 관광으로의 구조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표 사업인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나주 1박 2득'은 나주에서 1박 이상 숙박하

고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관의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1박에 두 가지 혜택(숙박 인센티브+지정 유류관광시설 할인 또는 무료 이용)을 제공해 관광객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동행 인원수에 따라 2~3인은 5만 원, 4~5인은 10만 원, 6인 이상은 13만 원을 지급하며 아동 동반 시 2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업은 시설투자 구축 및 사전 점검을 거쳐 3월 1일 이후 숙박분부터 인정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사전 신청은 오

는 2월 24일(예정)부터 '2026 나주방문의 해' 공식 홈페이지(<https://www.naju.go.kr/visitnaju>)를 통해 가능하며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지급 절차도 동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센티브 지급 방식은 현장 지급과 온라인 지급으로 이원화했다. 현장 지급은 나주시관광상품권(지류)으로 제공해 여행 중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즉시 이어지도록 했고 온라인 지급은 '나주몰' 포인트로 지급해 방문 이후에도 농특산물 소비가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 광양매화축제 '지속가능 축제'로 진화 개화를 의존 벗고 데이터·문화·환경·지역 상생 구조로 재편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개막을 3주 앞둔 가운데, 기후변화로 개화 시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속가능한 축제 운영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양매화축제는 지난 25년간 대한민국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온 급등락과 개화 시점 변동이 반복되면서, 개화를 중심의 기존 운영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축제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광양시는 제25회를 운영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 '개화'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데이터·문화·환경·지역 상생'을 결합한 지속가능형 축제 모델로 체질을 재편했다고 밝혔다. 자연의 변동성에 좌우되지 않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① 데이터가 여는 봄, 예측 가능한 축제 운영 광양시는 올해 축제 일정 산출 과정에 기상청 기온 데이터와 내부 농업 자료를 분석해 만개 시점의 적산온도(500±10℃, 꽃이 피는데 필요한 누적 온도)를 역산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자연의 개화 패턴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일정에 반영한 것이다. 이는 경험에 의존하던 운영 방식에서 나아가, 자연 환경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조치다. ② 꽃을 넘어 경험으로, 문화 콘텐츠의 확장 제25회 광양매화축제는 전시·체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개화 시기의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 속에서 축제의 경쟁력을 다층화하고, 매화를 매개로 한 문화적 체험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다. 광양 출신 민화전통문화재 제2호 업체인 화백 특설전을 비롯해 국내 대표 미디어아트 작가 8인의 설치·체험 전시, 교육기관 연계 학생 공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축제의 문화적 완성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꽃을 보는 축제'에서 '문화를 경험하는 축제'로 운영 구조를 확장하고 있다. 자연 경관 중심의 관람형 축제에서 벗어나 체험과 참여가 결합된 콘텐츠형 축제로 발전시켜, 꽃



이 지고 난 이후에도 기억에 남는 경험 가치를 축적하겠다는 전략이다. ③ 환경을 비용이 아닌 기준으로 환경 위기 시대에 축제 역시 책임 있는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광양시는 2024년 전라남도 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한 대화용기 사용을 올해 더욱 공고히 하고,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강화해 친환경 운영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또한 살수차 운행과 소음 관리, 차 없는 축제장 운영, 셔틀버스 확대 운행 등을 병행해 친환경·저탄소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축제가 환경 부담을 가중하는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운영 기준을 재설정했다. 이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축제 전반의 운영 기준을 환경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다. ④ 일회성을 넘어 지역 경제 플랫폼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경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광양시는 입장료를 지역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하는 구조를 통해 축제 방문이 지역 내 소비로 직접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향토음식점·직거래장터·지역 특화 음식 부스를 확대해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축제 수익이 지역 상권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마련했다. 또한 차량 통제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카페와 상인을 축제장 내로 유입하는 상생 방안을 추진해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도모했다. 이는 축제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역 내 소비가 구조적으로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조치다. 광양/신선호 기자

보성군은 오는 3월 6일까지 관내 농업인의 전문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2026년 농업인 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8개 분야 26과정으로 구성되며, 총 645명을 모집한다. 보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분야별 교육과정은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3과정), ▲농업기술 전문교육(7과정), ▲농산물 가공 교

## 보성군, '2026년 농업인 교육' 교육생 모집

8개 분야 26과정 645명 선발... 전문 농업인 역량 강화 본격 추진  
육(4과정),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교육(2과정), ▲초보농업인 대상 농기계 실습 교육(4과정), ▲농업인 정보화 교육(4과정),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스마트 강소농 교육 등이다. 교육 신청은 방문, 전화, 홈페이지를 통

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획 인원 미달 시 교육 시작 1주일 전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은기 기자

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월동을 마친 맥류의 생육이 다시 시작되는 '생육 재생기'를 맞아 수량 확보를 위한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생육 재생기'는 겨울철 휴면 상태에 있던 보리·밀 등이 평균기온 상승과 함께 다시 생장을 시작하는 시기로, 이삭 수와 알곡 충실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온이 점

## 함평군, 맥류 생육 재생기 맞춤형 재배 관리 당부

차 올라 맥류 생육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시기에 맞춰 맥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관리법을 안내하고 있다. 센터는 배수가 불량한 논과 포장에 고랑을 정비해 습해를 예방하고, 과한 습도로 인한 뿌리 활력 저하와 수량 감소를 방지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 등 질소질 비료를 적정량 웃거름으로 사용해 초기 생육을 촉진하되, 과다 사용 시 도복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붉은곰팡이병, 흰가루병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포장 내

생육 불균형이 나타날 경우 원인을 신속히 분석해 맞춤형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맥류 생육 재생기는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배수 관리, 적기 웃거름, 병해충 예찰 등 기본적인 관리 요령을 철저히 이행해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평/전광훈 기자

영암군보건소가 2/23~3/13일 7개 마을경로당에서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영등이 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이 프로그램은, 140명 어르신이 참여해 총 42회 맞춤형 치료운동을 진행하는 지역사회 건강 증진 프로젝트. 근감소증은 40세 이후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65세 이상 20~30%, 85세

## 영암군, '영등이 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 운영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7개 마을경로당서 어르신 근감소증 예방

이상 50%까지 나타나는 대표 노년기 건강위험 요인이다. 영암군보건소는 프로그램에서 인바디 검사, 약력·하지근력·균형능력·근지구력 검사 등으로 어르신들의 데이터를 건강 확보하고, 단계별 운동처방으로 근기

회복을 유도한다. 근감소 회복과 예방을 위한 치료로는 스트레칭, 맨몸 하체, 탄력밴드 저항, 유산소 복합 운동이 실시된다. 아울러 1:1 맞춤형 치료 운동 프로그램, 근감소증 예방 물품 및 영양식단 제공, 모바일 앱 기

